

**한국후지필름(주), '97후지필름  
인상사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한국후지필름(주)는 한국 인상사진의 질적향상과 신제품 'NEW REALA' 발매를 기념하여 개최한 '97후지필름 인상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4월 28일 후지포토살롱(충무로소재)에서 개최했다.

대한직업사진가협회가 후원한 금번 '97후지필름 인상사진 공모전'에는 "베이비, 실내인상, 웨딩"의 3개 사진부문에 총 1천3백 여점이 응모됐다.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베이비사진부문"에서는 조경문씨(서울-포토베스트9)가 대상을 수상했고, "실내인상사진부문"의 금상에는 홍순문씨(서울-153스튜디오), "웨딩사진부문"에는 금상 수상작없이 김종섭씨(부산-조은웨딩포토샵), 권영일씨(서울-포토캡)에게 각각 은상이 수여됐다.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1명), 금상(2명), 은상(6명) 수상자들에게 총 8백만원의 시상금과



▲ (주)인성호리프라스틱은 지난 5월 13일 ISO 9002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동상(15명), 입선(39명) 수상자들에게는 '리얼라' 필름 2천 6백70R/L이 상품으로 수여됐다.

한편, '97후지필름 인상사진 공모전' 입상작들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후지포토살롱에서 성황리에 전시됐으며, 금번 공모전에 입상한 전원에게는 대한직업사진가협회 입회접수가 각각 부여됐다.

**(주)인성호리프라스틱, ISO 9002  
인증획득 및 무재해 3배 달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 사출업체인 (주)인성호리프라스틱은 지난 5월 7일, 전자부품에 대한 ISO 9002인증을 한국품질보증원으로부터 획득했다.

또한 지난 2월 21일에는 무재해 3배달성장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수상하기도 했다.

이에 (주)인성호리프라스틱의 김시홍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품질요구수준에 부응코져 사내 품질개선에 주력, 100PPM 인증획득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태평양경제협력이사회, 한국 을 하반기 수출회복 전망**

-8.3%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국의 수출이 지난해의 '반도체 충격' 으로부터 벗어나 97년에는 8.3%의 증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태평양경제협력이사회(PECC)가 최근 발표한 '태평양지역 국가 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97년 수출은 전반적인 세계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이와같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나 교역조건 개선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원화의 대달러화 약세는 97년 하반기부터 효력을 나타내게 될 것으로 보여 한국의 수출회복은 3/4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나 엔화의 대달러화 가치변동이 이러한 수출회복 정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파악됐다.

한편 한국의 수입은 설비투자의 둔화에 따라 증가율이 둔화되어 전체 경상수지 적자는 96년의 237억달러에서 97년 192억달러, 98년 161억달러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한국의 경제성장률(GDP)은 97년 원화 약세로 수출증가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97년 하반기부터 완만한 성장국면으로 접어들어

97년 전체로는 6%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98년에도 이러한 완만 성장세는 지속되어 연간 GDP 성장률은 6.8%를 기록, 96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통화안정정책 및 성장을 둔화로 97년 4.7%, 98년 4.4%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문제로서는 OECD 가입에 따른 자본시장 자유화 및 금융제도 개편,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한보철강 부도와 같은 대형 경제사고 등이 지적됐다.

러시아는 이 지역국가들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디지털카메라 대량 출시**

컴퓨터로 영상을 조작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 등 디지털 관련 제품이 저가(低價)로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머지않아 전문 디지털 영상 작가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영상 조작과 음악 첨가, 삽화 제작 등을 일반인들도 손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란타 컴덱스컴퓨터 전시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은 미 이스트먼 코

다사가 내놓은 제품으로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DVC)로도 자체변환이 가능한 비디오 카메라이다.

코닥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300」은 디지털 영상을 직접 개인용 컴퓨터(PC)에 입력, 편집과 전송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USB라는 신형 PC접속기를 구입해야 하는데도 출시 2개월만에 소비자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코닥측은 특히 아마추어 디지털 사진작가들을 위해 「코닥 픽처 네트워크」(Kodak Picture Network)라는 웹사이트를 개설, 작가들이 온라인 포토앨범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의 「피너클 시스템스」사는 특수효과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해 보급판 규모의 미니 스튜디오를 선보였다.

이 회사의 「비디오 디렉트 스튜디오 200」은 비디오 카메라를 PC에 연결,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에 전송하기 전에 미리 영상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품으로 2백99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이밖에 일본의 히타치사도 이번 컴덱스 전시회에 20분 분량의 필름을 PC카드에 저장할 수 있는 카메라 「MPEGCAM」을 선보였다.

**후지필름과 코닥 디지털카메라  
규격 통일**

일본 후지필름과 미국 코닥이 디지털카메라용 영상파일 포맷 신규격을 통일했다.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두 회사는 후지필름이 개발한 영상파일 포맷 「Exif」의 개량판을 새로운 규격으로 합의하고 일본전자공업회(JEIDA)에 업계 표준으로 제안했다.

개량판은 미국의 벤처기업 라이브픽처와 코닥·마이크로소프트·휴렛패커드가 공동개발한 포맷 「플래시픽스」를 기본으로 더욱 선명한 영상을 고속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디지털카메라는 올해 들어 전세계에서 1백20만대가 생산되는 등 급속한 보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기록용 영상파일포맷 표준규격이 확립되지 않아 여러가지 포맷이 난립해 있는 실정이다.

**대우전자, 카메라시장 철수**

대우전자가 카메라시장에서 철수한다.

최근 대우전자에 따르면 올해 초그룹차원에서 소비재 수입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과 수익성 없는 사업을 조기에 정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그동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

식으로 진행해 온 카메라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유니버설 옵티컬 인더스트리사의 「야시카」 카메라를 홍콩을 통해 올초까지 수입·판매해 온 대우전자는 지난 3월부터 이 제품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우전자의 한 관계자는 「카메라 자체는 대우전자의 주력사업인 가전사업과 큰 연관성이 없고 대리점 구색품목으로도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향후 국내외 업체와 제휴해 카메라 판매를 지속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전자는 「야시카」 카메라에 대한 재고품 판매와 애프터서비스는 당분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삼성항공, 카메라 해외생산 강화**

삼성항공이 해외생산 및 연구기반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최근 삼성항공에 따르면 올해 경남 창원공장의 카메라 생산능력을 지난해 2백만대에서 올해 1백만대로 줄이는 대신 지난해 80만여대를 생산했던 중국 天津공장의 생산량을 1백50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난 95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멕시코공장의 생산능력도 지난해 10만여대에서 올해 30만대 수준으로 높여 연말까지

해외 생산비중을 64%로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항공이 올해 들어 당초 예정을 앞당겨 해외 생산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은 엔低로 인해 작년 하반기 이후 국산 카메라의 가격경쟁력이 장기간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삼성항공은 해외 생산기반 확충과 함께 독일의 롤라이사에 세운 RDC연구소에 오는 99년까지 총 1백억원을 투자, 연구인력을 현재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一眼리플렉스(SLR) 기종 등 최고급 35mm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연구를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총 1천4백만달러의 카메라 수출실적을 기록한 삼성항공은 올해 수출목표를 작년보다 35% 늘린 1천9백억원으로 잡고 있다.

**디지털카메라, 가격하락 급속화**

디지털 카메라의 가격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현대전자·한국코닥·후지필름 등이 잇달아 40만~80만원대 보급형(해상도 40만화소 이하) 제품을 도입, 디지털 카메라 대중화 시대의 막을 올린 데 이어 올해 들어선 해상도 1백만화소 이상의 고급형 디지털 카메라시장에서도 혁신적인 가격의 신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용으로 인식돼 온 고급형 디지털 카메라는 1백만화소급 5백만원대, 1백50만화소급 1천만원대, 은염 필름의 현상도와 맞먹는 6백만화소급은 3천만원대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관공서·연구소·언론기관 등을 중심으로 연간 수백대 정도가 판매되어 왔다.

그러나 올들어 한국폴라로이드는 그동안 5백30만원에 판매했던 1백만화소급 디지털 카메라(모델명 PDC-2000)에 새로 개량된 기능을 추가하면서 제품가격을 대폭 인하, 3백90만원에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이어 한국코닥은 1백60만원대의 1백20만화소급 디지털 카메라(DC-120)를 새로 출시했다.

최대 5.6MB의 이미지를 40장까지 저장할 수 있는 폴라로이드 PDC-2000은 압축파일을 사용하지 않아 이미지 전송시 데이터나 픽셀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으며 다이렉트 드라이브·포토샷플러그인 등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이미지 편집·합성 등 다양한 부가작업을 할 수 있다. 또 한글 윈도95에서 소프트웨어를 운용할 수 있고 접사렌즈 채용, 노출조정이 가능한 스튜디오 전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

으로 동시에 출시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코닥의 DC-120은 기존 고급형 제품에 비해선 부가기능이 대폭 생략되었으나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의 3~4배에 달하는 해상도에 1백만원대 가격이란 점에서 디지털 카메라 대중화에 새로운 획을 긋는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제품은 1.6인치 액정모니터, 3배 전동줌, 착탈식 메모리 카드를 채용함으로써 일반 자동카메라처럼 사용편리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카메라업계의 관계자들은 『과거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 가격에 1백만화소급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함으로써 화질에 대한 불만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조만간 1백만화소급 디지털 카메라가 현재의 고급형 자동카메라 가격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 삼성전자, 光부품 中·日수출

삼성전자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 필수적인 핵심 광(光)부품을 일본과 중국에 수출한다.

삼성전자는 광부품의 일종인 광페룰(Optical Ferrule) 10만개를 일본 현지 판매법을 통해 5월부터 공급기로 했으며 또 중국 우전부 산하 무한(武漢)연구소에 연간 30만개

의 광페룰을 공급기로 계약했다고 최근 밝혔다.

광페룰은 광통신 장비와 광케이블을 연결하는 광커넥터의 핵심 부품으로 1백25 $\mu$ ( $\mu$ =미크론:1천분의 1mm) 굵기의 광섬유를 서로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

초정밀 가공기술이 요구돼 개발종주국인 일본이 세계시장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이 제품을 개발, 국내시장에만 공급해왔으나 최근 기술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일본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개가를 올렸다.

삼성전자는 이어 대만 미국 등지의 수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광페룰은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가입자 광통신망이 실현되는 2000년 이후 연간 수요가 10억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광페룰을 광통신 분야 핵심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 케스케이드미디어웍스, 디지털 포토샷 전국체인망 구축

디지털앨범 제작회사인 케스케이드미디어웍스가 전국 체인망인 「디지털포토샷」 구축에 나선다.

케스케이드미디어웍스는 앞

으로 2년내 전국 3천여개의 컴퓨터 매장·사진관·필름현상소 등에 디지털앨범 제작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지원키로 하고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미국 시애틀 필름웍스사에 이어 최근 LG-IBM PC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케스케이드미디어웍스는 미국산 고해상도 스캐닝시스템과 LG-IBM의 고성능 멀티미디어PC, 20인치 컬러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PC, 옥외간판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할 예정이다.

### 미국 코닥, 저가 디지털카메라 시판

미국 이스트맨 코닥사는 최근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는 1천달러이하의 저가에 시판함으로써 필름없는 카메라 시대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번에 시판된 신형 DC120 줌 디지털 카메라는 가격대 해상도 비율이 기존 디지털 카메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지만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에는 아직 화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업계 전문가들은 보통 3백달러선 이하 가격으로 카메라를 장만해 가정용 앨범 사진을 찍는 정도로 활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데는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취미 사진가들이나 기타 화상자료를 신속히 전송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동산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눈길을 끌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분석이다.

즉 DC120은 현재 1천달러 이하 기종으로서는 가장 뛰어난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가격대 해상도 비율면에서 돌파구를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1백20만화소에 1천2백80×9백68의 해상도를 제공하는 DC120이 출시되기 전에는 이같은 해상도를 갖춘 카메라를 구하려면 최소한 4배 이상의 거금을 투자해야만 했다. 코닥측은 따라서 DC120 기종이 디지털 카메라의 한 분수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 테크라프, 소형카메라용 리튬전지 개발

테크라프는 자동카메라의 소형화 추세에 발맞춰 지름 15.6mm, 길이 27mm의 원통형 소형 리튬전지 「CR 2」를 개발 최근 본격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CR2는 세계적으로도 최근에야 상품화돼 소형카메라를 중심으로 기존의 2셀타입 제품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7백50

mAh 용량의 3V 제품으로 테크라프는 우선 같은 1셀짜리 제품인 「CR123」라인을 조정, 5월부터 월 2만셀 정도를 생산하고 다른 제품 생산라인도 점진적으로 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전환, 하반기에는 생산량을 월 5만셀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 회사는 카메라용 리튬전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방색 일변도의 기존 제품 디자인을 흰색 바탕에 빨강·초록·노랑 등 원색을 삽입하는 형태로 교체, 출시하는 한편 이번에 개발한 소형카메라용 제품도 흰색 바탕에 파란색을 주로 사용한 디자인으로 생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NHK, 자외선·적외선 촬영 컬러표시 가능한 TV카메라 개발

일본 NHK방송연구소가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자외선과 적외선을 가시광선과 동시에 촬영해 컬러표시할 수 있는 TV카메라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새 TV카메라는 자외선에서 적외선까지 투과하는 합성석영과 형식으로 만든 카메라 렌즈와 분광프리즘을 채택했고 受光부분도 자외선과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개량했다.

새 카메라에서는 렌즈를 통과한 빛이 프리즘에 의해 △자

외선과 청색 △녹색 △적색과 적외선 세 가지로 나뉘는데 자외선과 청색, 녹색은 촬상관에, 적색과 적외선은 고체촬상소자(CCD)에 각각 담겨, 자외선은 청색, 적외선은 적색으로 표시된다.

수광할 수 있는 빛의 파장 범위는 2백50~1천50nm로 렌즈에 결합하는 필름을 교체해 조절할 수 있다.

### ■ 복사기부품 공용화사업 추진 활발

복사기업계가 복사기 부품의 표준화 및 공용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관계기관 및 관련업체에 따르면 자본재 표준화계획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사기 부품의 표준화 및 공용화사업에 최근 신도리코·롯데캐논·코리아제록스 등 주요 복사기업체들이 속속 참여하고 있다.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으로 복사기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으로 국내 복사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사업을 통해 업체간 소모적인 경쟁을 자제하고 기존 다품종소량생산에서 소품종대

량생산 체제로 전환해 그동안 일본의 제휴처와 부품업체를 통해 들어 온 부품의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국내 1백여개에 이르는 영세 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광학기기협회와 복사업체들은 1단계 표준화 대상품목으로 롤러·커넥터·솔레노이드·반사경 등 복사기의 주요 부품을 선정, 이들을 우선적으로 국산화해 업체간 공동개발 및 공동구매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만간 2차 표준화 대상품목으로 드럼·렌즈·원고자동이송장치(ADF)·소터 등을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련업체간 표준화작업이 마무리되면 한국산업표준원의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화(KS)까지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복사기 부품 표준화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광학기기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복사기업계 관계자들과 정기모임을 갖고 부품 표준규격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왔다』면서 『현재 표준화 규격이 성안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복사기 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는 진작에 추진했어야 할 사업』이라며

『공용화 적용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부품 공용화가 실현되면 업체간 중복투자 방지 및 완제품에 대한 원가절감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 ■ 태일정밀, 복합 OA기기 개발

태일정밀이 국내 최초로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팩스의 기능을 모두 갖춘 다기능 복합기 엔진을 개발했다.

9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다기능 복합기 엔진 「MFP엔진」은 레이저 프린터의 엔진을 기본 골격으로 해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의 기능을 통합시켰다.

태일정밀은 이 엔진의 개발로 연 3억달러 이상의 수출을 포함, 연 6억달러 상당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 제품은 레이저 프린터의 엔진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개발할 복합기에도 채용할 예정이다.

태일정밀은 이 엔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등 3종의 기능을 합친 다기능 복합기 저가형 모델과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팩스 전화 등 5종의 기능을 지원하는 고가형 모델을 선보일 방침이다.

저가형은 일반사용자를 고가형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

작된다.

이 제품은 4가지 기능을 하나의 엔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강점을 이용, 가격을 최소화해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PC상에서 프린트는 물론 팩스 스캔 복사까지 가능하므로 신속하고 빠른 데이터 처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 ■ 디지털복합기시장 활성화 조짐

최근들어 복사기를 비롯해 팩스·프린터 등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디지털복합기 시장이 활성화하고 있다.

최근 관련업체에 따르면 코리아 제록스·신도리코·롯데캐논 등 주요사무기기 전문업체들이 디지털복합기를 속속 출시하는 등 판촉활동 강화에 나서 올해를 기점으로 디지털복합기 시장이 본격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리아제록스는 지난해 이미 디지털복합기 「에이블시리즈」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 후속제품으로 복사기와 프린터·팩스기능까지 갖춘 디지털복합기 「에이블 3321P」 및 「에이블 1321P」를 출시, 디지털복합기 시장의 주도권 장악에 나섰다.

이를 위해 코리아제록스는 자사 영업사원 및 대리점 직원

을 대상으로 「에이블시리즈」에 대한 분기별 판매왕 제도를 신설하는 등 디지털 복합기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코리아제록스는 분당 인쇄속도 32장(A4기준)인 「에이블시리즈」를 올해 전략상품으로 선정, 마케팅 역량을 집중해 3천여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도리코는 조만간 복사기와 팩스기능을 통합한 디지털복합기 「시그마 7700」을 선보이면서 디지털복합기 시장선점 경쟁에 본격 가세한다. 특히 신도리코는 기존 디지털복합기가 1천만원대를 호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이번에 출시하는 「시그마 7700」의 가격을 5백만원대로 조정해 소비자들의 수요를 촉발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신도리코는 우선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사무실의 고급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시그마 7700」을 집중 공급해 올해 1천여대를 시판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캐논도 오는 10월께 복사기와 팩스기능이 접목된 디지털복합기 「GP 215」를 출시하면서 시장 주도권 경쟁에 참여할 계획이다.

롯데캐논은 「GP 215」를 분당 인쇄속도 21장(A4기준)의 흑백중급형으로 정해 가격을 현실화하는 한편 복합기 선명도를 1천2백dpi의 고해상도로

유지하면서 디자인업체와 관공서·기업체 등을 집중 공략해 기존 아날로그 복사기 시장을 급속히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대우통신도 기존 수입제휴처인 일본 미타와 미놀타로부터 디지털복합기를 들여와 내년부터 이 시장에 뛰어든 예정이며 현대전자도 내년 상반기에 기술제휴처인 일본 사프로부터 디지털복합기를 도입해 국내에 공급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디지털복합기 시장이 울들어 치열한 경쟁체제로 접어들어 판매가 크게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사무환경이 급속히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및 네트워크화할 것으로 보여 올해 디지털복합기 5천대 판매는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 공정거래위원회, 신도리코에 복사기 과장광고 시정명 내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사기 제조업체인 신도리코가 일부 종이걸림현상(잼)을 자동제거기능으로 처리할 수 없는데도 잼을 모두 없앨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공정위에 따르면 신도리코의 종이걸림 자동제거기능을 갖춘 복사기 「잼프리」는 일부의 잼은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이걸림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컬러복사기 도입농고 금융권과 복사기업체 갈등심화**

최신형 컬러복사기 도입을 놓고 은행권과 복사기업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롯데캐논과 코리아제록스가 올 하반기 내에 캐논「CLC 1000과 제록스「다큐컬러」등 최첨단 컬러복사기를 도입하려고 하자 조폐공사와 은행권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최신형 복사기의 도입으로 위조지폐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복사기업체의 반응은 다르다. 위조지폐를 만드는 주체는 복사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오히려 위조지폐 문제는 컬러복사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시장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컬러복사기가 위조지폐를 만드는 데 악용된다는 이유로 수입단계에서 사용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통제와 규제가 가해진다.

컬러복사기 자체에도 화폐 위조를 차단하는 락장치가 설치돼 있어 주요 국가의 화폐 위

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설사 지폐가 위조됐다 하더라도 자동감지시스템에 의해 위폐가 만들어진 복사기의 등록번호와 등록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마저도 통제하는 이같은 규제 때문에 국내시장을 고스란히 외국업체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의욕을 꺾어 국내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복사기업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에는 컬러복사기의 주요 수요처인 컬러복사 전문점을 비롯해 광고업체 의류 디자인업체 그래픽전문업체 외국계회사 등에서 최첨단 제품에 대한 주문이 쇠도해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를 외국제품이 장악한다는 것이다.

현재 코리아제록스와 롯데캐논이 수입판매하고 있는 컬러복사기는 4천만원대의 고가제품이 대부분이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사용자들이 위조 지폐를 만들어 범법행위를 할만큼 돈에 궁색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 복사기업체의 주장이다.

국내에서 위조 지폐를 찍어내는 데 사용된 제품은 캐논의 CLC10, CLC7모델의 저가형 제품들이었다.

**통상부, 광전자부품 기술개발에 1백20억 투입**

통상산업부는 국내 광소자 산업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정부와 업계가 1백20억원을 들여 광전자부품의 첨단 패키징 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LG전자·삼성전자·현대전자 등 광전자부품업체 및 소재·광응용기기업체들이 참여해 광소재 부품 등 4개 분야, 8개 과제를 개발하게 된다.

광소자는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광케이블 TV 등 정보통신산업 분야, 광센서 및 광계측기기 등 정밀계측기기산업 분야, 레이저 장비를 비롯한 군사 과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응용된다.

광전자부품을 세계시장 규모는 96년 2천1백94억원에서 2001년 3천4백16억원, 2010년 4천1백33억원으로, 국내시장 규모는 96년 1백54억원에서 2001년에는 2백39억원, 2010년에는 2백89억원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항공, 고속 레이저가공기 기술도입**

삼성항공은 최근 레이저가



공기 제작업체인 벨기에 벨류(BALLIU M.T.C)사와 첨단 레이저 절단가공시스템에 관한 기술도입 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항공이 이번에 기술을 도입해 생산 및 수출에 나설 고속레이저가공기(모델명 LC-15000G)는 3.5kW급 CO<sub>2</sub>레이저를 탑재해 가로 1.5m, 세로 3m 크기의 철판 등을 고속으로 절단할 수 있으며 연강의 경우 최대 23mm, 스테인리스강은 10mm 두께까지 절단이 가능하다.

삼성항공은 이번 고속 레이저가공기 도입으로 자체 양산 모델인 하이브리드 레이저가공기와 함께 일괄생산체제를 갖추게 됐다.

삼성항공은 이 제품을 하반기부터 양산에 착수, 벨류사에 OEM방식으로 향후 1천만달러어치 이상 수출하고 내수판매에도 나설 계획이다.

삼성항공은 레이저가공기 사업분야를 차세대 사업으로 선정, 레이저가공기부문 매출을 1백20억원 규모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중기청, 중소기업체에 자금 및 기술지원**

정부는 국산 계측기의 품질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2단계 사업으로 올해 23개 중소기업체를 선정, 자금 및 기술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국산 계측기 세계일류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23개 품목, 30개 중소기업체를 선정·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는 초음파거리측정기와 분광광도계 등 19개 품목을 생산하는 23개 업체를 세계일류화 지원대상업체로 선정, 5월 말부터 종합적인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최근 발표했다.

중기청은 신제품 개발능력과 세계일류화 가능성 여부, 제품의 정밀도 등 10개 항목에 걸친 정밀진단과 평가를 거쳐 선정된 이들 업체에 대해선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과 수출시장 개척사업도 전개할 방침이다.

올해 세계일류화 지원대상업체는 다음과 같다. ( )안은 품목.

- △코메론(초음파 거리측정기)
- △선일옵트론(분광광도계)
- △덕산메카시스(분광광도계)
- △한국후로셀(유량계)
- △자인테크놀로지(유량계)
- △동일계기(수질 자동측정기)
- △한국정밀기기상사(수질 자동측정기)
- △삼창기술(가스성분 분석기)
- △화인계기(크랩프 미터)
- △마포산업전자(연소가스 분석기)
- △삼창기업(PCB 자동분석기)
- △서진인스텍(레벨게이지)
- △오토시스(소음진동 분석기)
- △

- 재영정밀전자(네트워크 저항기)
- △정산기계(로드셀 및 실하중 힘 표준기)
- △대성로드셀(로드셀 및 실하중 힘 표준기)
- △삼진전자(윤활오일 분광분석기)
- △새한엔지니어링(공해 측정기)
- △동양시스템전자(전자응용 계측기)
- △정진전자(신호발생기)
- △한반도(균형시험기)
- △코닉스(기록계·지시계)
- △메덱스(디지털 멀티미터)

**인텍엔지니어링, 광학식 측정기 본격 공급**

계측기기 전문업체인 인텍엔지니어링이 정밀측정이 가능한 광학식 치수·형상·표면조도 측정기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인텍엔지니어링은 올해 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와 공동으로 개발한 광학식 치수·형상·표면조도 측정기의 본격적인 생산체제를 갖추고 최근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에 첫 제품을 구축한데 이어 상반기 중으로 국내 중소전자부품 및 화학 관련업체에 제품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광학식 측정기는 3차원 형상측정을 비롯해 2차원·3차원 치수측정, 표면거칠기 평가·분석이 가능해 초정밀 기계가공 부품, 반도체 웨이퍼, 광커넥터, 마그네틱 테이프, 하

드디스크 등 정밀측정분야에 필수적인 장비이다.

이 회사는 기존에 미국 자이코·와이코社 등이 대당 1억2천만원대에 독점 공급해온 데 비해 이 측정기를 대당 4천만~5천만원선에 공급하는 등 가격경쟁력을 갖춰 수입물량을 적극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인텔엔지니어링은 이를 통해 이 분야에서 올해 말까지 1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노르웨이, 비디오도어폰 수입급증**  
-한국산 제품 가격경쟁력 충분-

노르웨이에는 비디오도어폰 생산업체가 없기 때문에 국내 수요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비디오도어폰 수요는 연간 800~1천개 정도로 크지 않은 편인데, 이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기존의 인터폰이나 도어폰으로도 큰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촉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련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범죄율 증가 추세와 함께 일반 가정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종 고기능 안전장치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 특

히 가정용 경보장치 수요는 연간 30% 이상이나 증가하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를 감안할 경우 비디오도어폰 수요도 관련 수입상들의 적극적인 판촉활동이 병행되면서 향후 2~3년내 시장규모가 2~3배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르웨이 관세분류상 비디오도어폰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도어폰, 인터폰 등과 함께 통합 분류돼 있어 비디오 도어폰의 정확한 수입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련 수입상에 따르면 현재 수요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금액기준이 관세번호의 약 5~10%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최근 관련제품의 수입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폰, 도어폰 및 비디오도어폰류 총수입액은 94년 N.Kr. 6,723만에서 95년

N.Kr. 8,021만으로 19%가 증가했으며 96년의 경우도 관세번호가 변경되면서 일부품목이 추가된 요인도 있으나 N.Kr. 1억9,635만으로 약 2.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별로는 96년 기준 최대공급국은 미국으로 N.Kr. 5,746만을 수출, 시장점유율 29.2%를 점유했고, 영국(N.Kr. 3,509만), 프랑스(N.Kr. 2,584만), 이스라엘(N.Kr. 1,699만), 일본(N.Kr. 1,688만) 등이 주요 수출국이다. 한편 우리나라 수출실적은 95년 N.Kr. 165만에서 96년 N.Kr. 177만으로 7%가 증가했으며 시장점유율은 0.9%에 불과하며 인터폰이 주류이다.

노르웨이의 인터폰류 수출은 수입물량중 일부가 덴마크, 스웨덴, 러시아 등 인근 지역에 재수출되는 것인데, 연간 수출

노르웨이 비디오도어폰 수입실적

(단위 : N.Kr. 천)

국 별	1994	1995	1996
미 국	1,126	3,659	57,455
영 국	9,183	2,899	35,086
프 랑 스	10,974	18,966	25,835
이 스 라 엘	959	419	16,996
일 본	20,348	16,751	16,827
스 웨 덴	3,650	4,202	12,493
덴 마 크	6,753	754	5,573
독 일	5,745	2,685	4,854
한 국	1,348	1,654	1,770
총 계	67,225	80,206	196,354

\* N.Kr. 1=US\$7.0(94년), 6.3(95년), 6.4(96년)

규모는 94년 N.Kr. 73만, 95년 N.Kr. 314만, 96년 N.Kr. 276만으로 큰 변동이 없는 편이다.

비디오도어폰의 일반 수입 관세는 17.2%인데 우리나라는 GSP 수혜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23%로 매우 높은 편이다. 비디오도어폰은 모니터 및 도어카메라가 유선으로 연결된 통신기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몇가지 표준규격(규정)에 부합되는 제품만이 판매될 수 있다.

마킹과 관련 EU 안전규격(CE) 획득이 필요하며 저압기기 및 라디오 주파에 관한 EU 지침(EMC)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통신기기로도 분류되기 때문에 통신기기 현지 관련규격도 획득해야 한다.

이 제품은 현지시장에서 일종의 신규제품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범죄율 증가추세와 함께 보다 기능이 우수한 안전·경보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디오도어폰 판매량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특히 설치의 간편성과 현지주택이 연립형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2wired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비디오도어폰은 아직까지 수요가 많지 않아 판매경쟁이 치열한 편이 아닌데 현재 독일

의 Siedel 및 Biotron 브랜드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며 시판가격은 N.Kr. 6천이고, 특히 Siedel 브랜드가 현재 수요의 대부분을 커버하고 있다.

이 밖에 이탈리아의 Comelite, Elbox 브랜드도 소량 수입, 판매되고 있는데 시판가격은 N.Kr. 5천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산의 경우 진출 초기단계로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는 않는데 관련 수입상은 시판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일반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판매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면서 N.Kr. 2,500~3천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KOTRA 오슬로무역관의 적극적인 중개로 최근 전문수입상이 한국의 2~3개사 제품을 시험주문했는데 사전샘플 검토 결과 품질이 양호하고 특히 가격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현지 한 수입상은 한국산의 품질이 독일 및 이탈리아산에 비해 손색이 없으며, 특히 가격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공격적인 마케팅활동만 병행된다면 향후 2~3년에 상당한 물량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감을 표명했다.

한국산 비디오 도어폰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각종 기술규격에 맞는 품질이 선행

돼야 한다.

또한 현지 진출의 최대 관건은 전문수입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현지시장은 시장규모가 협소하고 상권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도·소매 유통조직과 연결돼 있는 품목별 전문수입상들이 발달돼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 도·소매 유통조직인 전문체인점들도 직접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같이 전문수입상이 발굴되면 소량주문도 적극 수용하고 판촉활동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마케팅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입상 명단

- Oddstolen Elektronik AS  
P.O.Box 369 Sentrum,  
6501 Kristiansund  
Tel : 47 71 56 69 30  
Fax : 47 71 56 69 34  
Contact : Mr. Sverre Oddstol
- Alarm & Las Kompaniet  
As Oluf Onsundsvei 9,  
0680 Oslo  
Tel : 47 22 19 14 10  
Fax : 47 22 19 61 20  
Contact : Mr. Bent Brende
- Falken Alarm & Sikringsteknikk AS

P.O.Box 51 Taasen, 0801  
Oslo  
Tel : 47 22 95 35 41  
Fax : 47 22 67 06 66  
Contact : Mr. Trond  
Andressen

○Alcatel Distribusjon AS  
P.O.Box 60 Okern 0508  
Oslo  
Tel : 47 22 76 26 00  
Fax : 47 22 76 26 10  
Contact : Mr. Torbjorn  
Ullbak

○R. Christensen Installas-  
jon AS  
Bjerkass Naeringspark,  
Bygg 24, 1390 Vollen.  
Tel : 47 66 90 24 01  
Fax : 47 66 90 24 05  
Contact : Mr. Christensen

○Concordia AS  
P.O.Box 68 7053 Trond-  
heim-Ranheim  
Tel : 47 73 57 39 61  
Fax : 47 73 57 33 48  
Contact : Mr. Arvid  
Sneeggen

**고등기술연구원, 민·軍겸용기술  
개발 대폭 확대**

고등기술연구원은 오는 2000년까지 총 6백억원을 투입, 핵심 방위산업관련 기술개발과 이를 민간부문에 활용할 민군겸용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고등기술연은 이를 위해 연구인력을 기존 6백명에서 2000년까지 8백명 수준으로 늘리고 이중 25%인 2백여명을 박사급 연구인력으로 확보하는 한편 실험실도 플라즈마 응용실험실을 비롯 10개 전용 실험실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고등기술연구원이 앞으로 중점 추진하게 될 민군겸용기술 개발사업의 주요 과제를 보면 △자동항법장치 △플라즈마를 이용한 고감도 표면처리 기술 △비동기식(ATM) 전송망용 주문형 반도체 △레이저 가공 및 측정 시스템 △자동화 로봇 등이다.

특히 ATM 전송망용 주문형 반도체는 2000년을 전후해 폭발적인 민간부문 수요가 기대되는 분야로 초고속 멀티미디어

통신을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정보통신분야 핵심기술이다. 또 자동항법장치는 자동차, 선박 등은 물론 각종 비행체의 핵심부품으로 활용될 수 있고 플라즈마 표면 처리기술은 각종 민수용부품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최첨단 코팅기술이다.

고등기술연은 이같은 민군겸용기술개발을 위해 조합원사인 대우그룹 계열 연구소를 주축으로 국방과학기술연구소(ADD), 독일 플라즈마 연구소,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의 연구기관 등 국내외 연구기관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아주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국내 주요 대학과도 상호연구원을 파견하는 등 공동연구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등기술연구원 민·군겸용 기술개발 과제

구분	새부기술과제	협력기관
항공우주	광학식 자이로스코프, 자동항법장치, 위성통신	국방과학연·대우중공업, 대우전자, 구소련 연구기관
자동화	자동화 로봇, 각종 컨트롤러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아주대, 구소련 연구기관
플라즈마 응용기술	플라즈마 이용 고감도 표면처리 플라즈마 정화장치	대우중공업, 대우정밀, 대우자동차
레이저	원격 탐지용 레이저, 레이저 가공 시스템 레이저 이용 측정시스템	대우중공업, 대우기전, 구소련 연구기관
ATM 전송모드	ATM스위치, ATM용 ASIC설계, 각종 응용 SW	대우통신

명정수 고등기술연 연구기  
 획실장은 최근 이 연구소가 민  
 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확대하  
 기로 한 배경에 대해 『추가적  
 인 시설투자 없이도 방위산업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이미  
 갖추고 있는데다가 이들 기술  
 을 민수용 기술로 전환하는 과  
 정이 조합원사인 대우그룹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으로  
 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  
 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  
 명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고속 광송  
 신기용 핵심부품 개발**  
 -10Gbps급 레이저 구동회로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초고  
 속 광송신기용 핵심부품인  
 10Gbps급 레이저 구동회로개  
 발에 성공했다.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은  
 HAN/B-ISDN 과제의 일환으  
 로 반도체 레이저를 제어해 입  
 력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  
 시키는 레이저 구동회로를 개  
 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초고속 광송신의 핵심인 이  
 기술은 알루미늄갈륨비소·갈  
 률비소·니켈크롬저항 등을 단  
 일 칩내에 집적시킨 것  
 (MMIC : Monolithic  
 Microwave IC)이 특징이다.

전자통신연구원은 레이저구  
 동회로에 대한 기관설계에서부

터 패키지 제작에 이르는 전과  
 정을 자체 개발해 초고속 변조,  
 대전류 구동능력 및 신호능력  
 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15GHz의 주파수대역,  
 10Gbps 이상의 전송속도,  
 30mA의 변조전류 특성을 보  
 여 아직 상용화가 안된 직접변  
 조방식으로는 세계적인 기술수  
 준이다. 전자통신연은 개발된  
 회로가 직접변조방식으로 구성  
 돼 외부변조기를 이용한 간접  
 변조방식보다 부품구성이 단순  
 해 절반 이하의 저가격화 실현  
 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미 자  
 체 개발한 10Gbps 레이저다  
 이오드와 결합할 경우 수십km  
 이내의 초고속 근거리통신망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PSIA社, 원자현미경 생산 착수**

반도체 생산공정에 사용되  
 는 원자현미경을 생산하는 회  
 사가 국내에 첫 설립됐다.

미(美)실리콘밸리의 성공적  
 인 벤처기업인중 한사람인 박  
 상일(朴常一) 전(前)PSI사 사  
 장은 서울 서초동에 법인  
 PSIA사를 설립, 지난 6월 12  
 일 개업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  
 갔다.

박사장은 88년 실험실용 원  
 자현미경 생산업체인 PSI사를  
 실리콘밸리에 창업, 8년여간  
 회사를 운영하다 올해초 미국

서모스펙트라사에 1백60억원  
 에 매각하고 이번에 국내에 창  
 업한 것.

이회사는 반도체 생산공정  
 등에서 관찰대상을 수천만배로  
 확대해 개별 원자를 관찰할 수  
 있는 산업용 원자현미경을 세  
 계최초로 개발해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美 스탠퍼드大, 원시(遠視)도  
 레이저 수술로 교정**

앞으로 원시도 레이저 수술  
 로 교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최근 미국 스탠퍼드 대학 레  
 이저 시력센터의 안과전문 의  
 애드워드 맨치 박사는 레이저  
 로 각막의 모양을 바꾸는 원시  
 교정을 개발, 임상실험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원시 PRK라 불리는 이 레이  
 저 수술법은 각막의 중심각도  
 를 더 깊게 만들어 주며 이로써  
 각막 앞쪽 표면이 얇아 선명치  
 못한 영상이 나타나는 원시를  
 교정해 준다. 그동안 근시의 경  
 우 레이저 수술등으로 교정이  
 가능했으나 원시는 교정이 불  
 가능했었다. 맨치 박사팀은  
 "현재 4개 안과 진료센터에서  
 이 기술에 대한 임상실험을 실  
 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결  
 과는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말  
 했다. 수술비용은 한쪽 눈에 1  
 천9백달러(한화 약 1백71만

원)이다.

### ■ 美코닥,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 출시

미국 이스트만 코닥社가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를 1천달러 이하의 저가에 출시함으로써 필름없는 카메라 시대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번에 출시된 신형 DC120 줌 디지털 카메라는 가격대 해상도 비율이 기존 디지털 카메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지만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에는 아직 화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업계 전문가들은 보통 3백달러선 이하 가격으로 카메라를 장만해 가정용 앨범 사진을 찍는 정도로 활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데는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취미 사진가들이나 기타 화상자료를 신속히 전송해야할 필요가 있는 부동산,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눈길을 끌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분석이다. 즉, DC120은 현재 1천달러 이하 기종으로서는 뛰어난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가격대 해상도 비율면에서 돌파구를 연것으로 업계 분석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와 외형은 비슷하지만 화상을 기록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

다. CCD라고 불리는 화상처리 소자를 통해 전자적으로 이미지를 받아들여 수없이 많은 작은 畫素(픽셀)의 전함으로 디지털화한 뒤 카메라내 기억장치에 입력, 저장한다. 기억장치에 저장된 화상 데이터는 바로 컴퓨터와 연결시켜 인터넷 등을 통해 다른 곳으로 전송하거나 프린터로 뽑아낼 수 있다.

따라서 현상 및 인화에 따른 번거로움과 비용부담이 없어 코닥, 후지, 캐논, 파나소닉같은 디지털 카메라 업체들은 지난 한해동안 카메라 애호가들과 사진기자 등 전문가들을 주 고객층으로 모두 1백만~2백만 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아직 전통적 필름 카메라 시장에 비하면 미비한 규모다.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큰 이유중 하나는 2백~3백달러선의 저가기종의 경우 일반 카메라에 비해 화질이나 해상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1백20만 화소에 1280×968의 해상도를 제공하는 DC120이 출시되기 전에는 이같은 해상도를 갖춘 카메라를 구하려면 최소한 4배이상의 거금을 투자해야만 했다. 코닥측은 따라서 DC120 기종이 디지털 카메라의 한 부수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종도 작은 스냅사진의 경우 보통 널리 쓰이

는 35mm 카메라와 엇비슷한 화질을 보여주지만 크기를 확대하면 여전히 화질이 기존 카메라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연간 30~40%의 성장이 예견되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팽창세는 필름을 주력업종으로 하고 있는 코닥의 장래에 대한 염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에대해 코닥측은 전통의 필름사진이 그리 쉽게 밀려나지 않을 것으로 낙관한다.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는 것과 비례해 전통적 사진에 대한 관심도 따라서 높아질 것으로 코닥측은 믿고 있다.

### ■ 한국코닥(주), 제7회 생활사진 콘테스트 가족사진 입상작 발표

한국코닥(주)는 스포츠조선과 공동주최로 사진동호인들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사진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한국사진작가협회 후원으로 실시한 제7회 코닥 생활사진콘테스트 가족사진 주제 입상작을 발표했다. 최우수작은 박연화씨의 '아빠! 사랑해'가 입상했으며 그 외 우수작 2점, 장려작 5점, 입선작 15점이 입상했다.

한편, 앞으로도 계속 실시되는 여행사진, 결혼사진공모의 입상작들을 모아 오는 11월 말에 코닥포토살롱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남 천안시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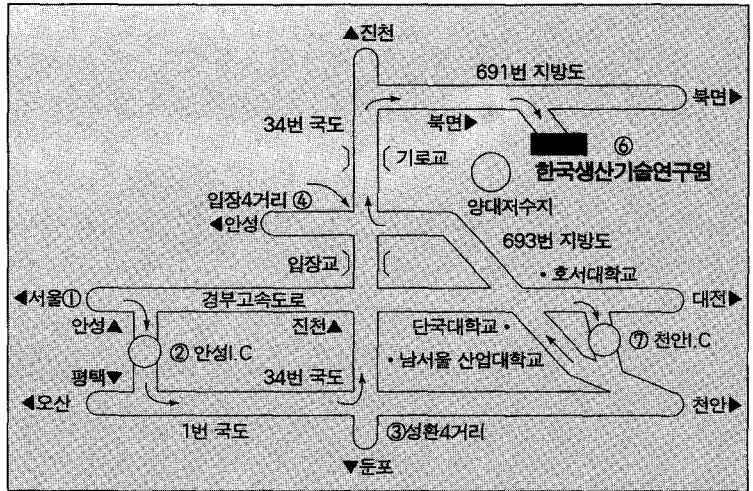
생산기술연구원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약칭: 생기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충청남도 천안시에 새로이 마련한 연구동으로 이전했다.

생기원은 지난 '89년 10월 기술혁신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의 사명을 갖고 개원했으며, 이번에 중부권 이남의 중소기업의 이용편리도를 고려해 천안으로 이전하게 됐다.

천안 연구동에는 청정공정, 청정설비, 섬유공정, 염색가공, 산업기계, 냉동공조, 금형기술 개발팀, 가공기술, 메카트로닉스, 정보기술, 소성가공, 재료공정연구팀 등이 이전해왔다.

산업기술정책연구소는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7

충남 천안시로 이전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위치도



롯데관악타워 6~7층으로 지난 5월 27일 이전했으며 전화번호는 02)8298-700이다.

반면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 및 기술교육센터 등의 부설기관은 기존의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36번지(전화번호 860-1114)에서 그대로 운영되

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변경된 주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홍천리 산 17-1이며, 대표전화는 0417) 5608-114, 그리고 WEB Site는 <http://www.kitech.re.kr>이다.

### 알아 드립니다

## WDM광전송이란?

WDM은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의 약자. 파장분할다중화 광전송방식으로 불리며 차세대 광전송기술로 꼽힌다. 한국통신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핵심 인프라인 기간전송망에 이 방식을 채택기로 함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빛에도 파장이 있다는 원리는 응용한 기술이다. 일정한 파장 간격으로 각각의 신호를 실은 채널을 배치하고 이를 광학적으로 다중화해 한기타의 광섬유를 통해 대량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케이블이 깔려 있는 구간 통신망의 혁신을 손쉽게 늘릴 수 있고 경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방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기간전송망의 기반인 2.5Gbps전송망을 10Gbps급으로 증설하는데 3채널의 전송정체를 추가하면 된다.

이같은 이점으로 인해 WDM은 유선전송의 CDMA(부호분할다중접속)기술로 불리고 있다. LG정보통신은 이같은 방식의 광전송장치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 공급할 예정이다.